

“응송 스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다매к 중흥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응송 스님 25주년 추모세미나’

1950년대 불교정화 과정에서 많은 스님들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당했다. 응송(應松) 박영희(1893~1990) 스님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응송 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한 이후 구한 말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며 교육자였다. 청소년기 항일 민병으로 활약했으며 만주에서는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생을 항일정신과 독립의지를 품은 응송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 이후 대흥사 산내 백화사에 머무르며 다도 연구를 심화시켰다. 특히 초의선사 다법을 이어 한국 다도를 복원하고 계승하는데 힘썼다.

이런 응송 스님에 대한 재조명의 자리가 열렸다. 동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재 고려대 교수가 진행하며 석종사 해국 스님과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박권희 한국자연연합 회장, 김중구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용흥사 명성선원장 진우 스님 등이 대회 축사를 맡아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병삼 “응송,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근·현대 불교에서 응송 박영희 스님의 위상’을 통해 불교 청년운동의

활동과 불교계 지도인사이자 선학에도 노력을 기울인 스님의 활동상을 살폈다.

정 교수는 “십대 후반 의병군 투신 후 스님은 곧 출가했다. 대흥사 강원서 뛰어난 자질을 보여 중비승으로 뽑혀 서울 불교중앙학원에서 근대 불교학을 공부했으며 재학 중에는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나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자주적 불교확립을 위한 비밀결사 만당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이후 만당 와해 뒤 조선불교청년동맹에서 서기장을 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스님은 1937년 대흥사 주지를 지내며 대흥사를 본산체제에 편입했고, 중앙교무원직도 맡았다. 이 행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광식 “만해학에도 응송 연구 포함”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에서 응송 스님의 자필 유고 <자서전>(1976)을 기본 자료로 근현대 불교라는 무대에서 응송 스님이 보인 가치관을 설명했다.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이었다. 김 교수는 “응송 스님은 1908년 항일외병에 관여한 인연으로 대흥사에 출가했다. 만해 스님의 신부름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민족대표간 연락과 기밀문서 전달 등이었다. 응송 스님의 신흥무관학교 입학은 3·1운동 직후 불교계 독립운동 진영의 전략으로 10여 명이



응송 스님

함께 입교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만당 당원으로 한용운 사상의 구현, 불교 자주화, 식민지 불교 극복에 매진했기에 만해학에서 응송 스님의 이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다죽일, 일죽다 문자화”

김미선 청주대 교수는 ‘응송 박영희 스님의 시문학 세계’에서 응송 스님의 ‘수연설법(隨緣說法)의 제법문(諸法門)’을 토대로 응송 스님의 선시 형식배경을 살폈다. 김 교수는 “응송 친필은 현재 확인되지 않

지만 속가 상좌인 박동춘 선생이 응송 생전에 필사한 내용을 통해 보면 스님이 남긴 선시는 선승 마조와 석두에서 시작한 것을 초의가 있고 또 이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응송의 선시 내용에는 오도의 선정, 목조의 선취, 불이의 선리, 격외의 선다 등의 특징이 있다. 즉 불이의 ‘다죽일, 일죽다’를 문자화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춘 “초의·일승 다법은 고운 뒤임”

끝으로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은 ‘응송 박영희 스님의 다법과 그 특징’을 통해 응송 스님이 출가 이후 대흥사 다법을 혼용 받은 것과 초의 다법과의 관계, 또 초의에 의해 복원된 한국 차문화의 원형 등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응송 스님은 1960년 후반 대흥사 반야교 아래 사저를 백화사로 명명한 후 초의 연구를 본격화했다. 특히 뜨겁게 차를 달이는 방법은 대흥사의 유풍으로 그의 제다법은 고운에서 차를 뛰어내는 뒤임차”라고 정의했다. 이어 “한 번의 살점과 유념, 재건 절차를 거치며 품색은 담백하며 시원한 맛을 지닌다. 소박한 방법에 예의와 절자에 구속되지 않으며 한 번의 정수를 우려내는 일방법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응송에 대한 연구는 초의 후손으로 다법을 이었다는 점 단만이 알려졌을 뿐, 제다법이 잘못 회자된 현실”이라며 “열반 25주년을 맞아 초의와 응송으로 이어진 다법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만해 스님 선양에 민·관 힘 모은다

동국대·속초시·인제군·홍성군·성북구청·서대문구청 MOU

만해 스님 선양사업에 동국대와 속초·인제·홍성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동국대(총장 보광)를 비롯해 속초시, 인제군, 홍성군,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등 5개 지자체는 11월 16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동국대 산하 만해연구소와 5개 지자체의 교육지원청도 참여했다. 특히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협의회와 함께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역사인식, 세계 평화실천 사상을 알리기 위한 순례길 개발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만해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재호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이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민·관 교류협약은 <님의 침묵>을 남긴 위대한 시인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토록 투쟁한 혁명가인 만해 선사의 민족정신과 역사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해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 연구소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만해 한용운 선사가 세계인으로서 보여준 도전정신과 그가 실천한 평화사상을 본받기 위한 만해로드 조성사업이 시급하다”며 “만해 스님의 여정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2)2260-8526

불교미술사학회, 제26회 학술대회 개최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지준)는 11월 14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26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미술사학회에서 발행하는 <불교미술사학>이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불교공예, 불교조각을 연구하는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연구원장의 ‘수덕사 패물, 노사나불의 경이적인 영기화상’과 중국 동향 연구 권위자인 왕해빈 연구원의 ‘둔황의 도한 형식 회화 연구’에 대한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강우방 교수는 “흔히 여래나 보살이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덕사의 노사나불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며 “자세히 채색 분석을 하면 보



주의 구멍에서 무수한 보주가 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의 보주가 무한히 확산하는 강력한 영기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장기현 대마시원통사총의 역사성과 의미, 정문석(창원시청) △고려전기 신앙식 석조불상의 등장과 전개, 정성권(중앙승가대) 등이 발표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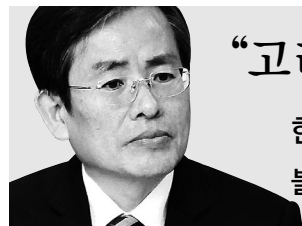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부산유형문화재 지정

부산시는 11월 12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용적사 신중도 △훈몽자회 책판 등 3종을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원래 11폭으로 구성된 불화로 올해 7월 스위스 경매장을 통해 본존(本尊)인 치성광여래도(熾盛光如來圖) 1폭과 칠성여래 2폭(제5·6여래) 등 총 3폭을 범어사가 매입해 국내로

환수됐다. 특히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3폭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원 소장자가 매입·환수해 원 소장처에 다시 봉안(奉安)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용적사 산신도 △용적사 지장시왕도 △육정사 신중도 △육정사 칠성도 △범망경노사나불석조불상삼지계품제실권화 등 5종도 부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하성미 기자



“고려시대 읍내 사원 존재했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세미나서 주장

“고려시대 도입에는 읍내마다 사원이 있었으며 보통명사로 주현 자복사라 불렀다. 이들 사찰은 총 70여개에 달했다.”

고려시대 행정체제 내에 사원이 존재했으며, 국가사원 체제를 통해 왕권을 집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11월 1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에서 개최한 호국불교연구 세미나 ‘고려시대의 국가와 불교’에서 ‘고려시대 주현 자복사와 향도의 역할’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먼저 “자복사는 읍내에서 사원승려들이 국가불교의례를 비롯한 많은 행정을 담당하는 체계 중심이었다”며 “대부분의 자복사는 신라시기부터의 사원을 고려시기 계승한 것이지만 보다 행정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여기에 자발적인 신도조직인

향도와와의 관계를 조명했다. 한 교수는 “지역사회에는 신행공동체인 향도가 있었으며 이는 읍내 자복사와는 달리 산중의 ‘신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다.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립 사찰인 ‘자복사’가 중국과 일본의 관사제도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운영형태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지역명과 사명을 같이 하는 반면 일본은 종파별 명칭을 붙였다. 고려는 반면 따로 연호나 경명, 사명이 있었으며 고려 장건 후 읍내 정비를 거느리게 국가 사원체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창현 고려대 교수의 ‘고려시대 승병 성격과 역할’ 발표와 박용진 국민대 교수의 ‘고려시대 대장경의 정치·사회적 기능’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내면 미소가 자비의 시작”

미산 스님,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에서

“불교에서의 자비는 불이상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는 다른 이에게도 번져나가 자비심을 이끌어 냅니다.”

미산 스님은 11월 21일 밝은사람들연구회 주최로 열린 학술연찬회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에서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미소를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공감이 일고, 이어 이것이 공동체의 식으로 이어져 자비행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중국대승 및 선불교에서의 자비’ 발제를 통해 선불교가 단순히 깨달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선지식이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 화두를 주고 할과 방 등을 활용하는 것은 모두 수행자로 하여금 진여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무언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예로 든 것이다.

스님은 내용 선사가 ‘행선축원문’에서 선의 반야공성 지혜가 자비로 발현되어야 함을 강조한 부분과 용성 선사가 ‘활구참선결사발원문’에서 활구참선으로 자비력의 실천을 강조한 점, 성철 스님과 서용 스님도 자비실천을 강조한 점 등을 들었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견성성불 요의중생’의 불교 가르침에서 자비가 함축하는 하화중생과 요의중생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 실천 방안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본인이 개발하여 실행 중인 자비수행법 ‘하트스마일 명상’을 소개했다.

“내면의 평화를 이끄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제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제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제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